

10 日間의 實習을 마치고서

曹京子

(梨大圖書館學科)

그러니까 그때가 期末試驗의 마지막 피치를 올린 날이었다. 하필이면 시험 끝난 다음날부터가 實習이라는 장난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서울大에 인사를 온 날은 바로 7月 28日 광장히도 무더운 날이었다.

移轉한 관악 캠퍼스를 가 본다는 즐거운 마음과 실습할 圖書館에 두려운 흥미를 느끼면서, 우리 3名이 93번 버스에 몸 담기 50여分, 종점에서 내렸다.

한눈에 보이는 수위실 위쪽으로 죽 뱈은 아스팔트 길. 가로수의 行列. 그야말로 땅볕의 20여分을 혁혁거리며 기어 올라가 結局 圖書館을 찾았다.

상기된 얼굴들로 貸出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몇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왔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용기를 내어 梨大 實習生 인데 인사를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느 분의 말씀 왈. “公文은 가져 오셨습니까?”라는 아찔한 質問아닌 答辯. 우리는 그저 놀랄 밖에…

가로수가 채 자라지 않아 그늘없는 땅볕 아스팔트길을 걸어 왔다. 말로만 듣던 에어콘 시설을 生覺하고 도착하면 은행과 같은 시원함을 맛본다는 달콤한 즐거움을 안고서 말이다. 그런데 무삼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 ×

다음날부터 수서과에서의 하루가 始作되었다.

반가운 인사를 받고 한껏 긴장했던 마음이 살짝 풀렸다. 그날은 가장 더운 날이었다. 게다가 가장 더운 곳이란다. 천정의 에어콘 구멍을 바라보면 볼수록 약이 올랐다. 그분들도 충분히 우리와 같이 동조할 것이다. 그 무더운 날씨에 열에 들떠 일한 보람(?)으로 우리가 한 카드배열은 word by word 순이 아닌 key word 순 배열의 불상사(?)를 빚기도 했다. 죄송스럽게 일을 늘린 결과인가요? 그저 귀엽게 봐 주시겠죠.

다음은 정리과로 갔다. 그곳은 女人天下였는데 게다가 우리까지도 女子였다. 정리과에서의 인사는 “짭잘하게 일해 봅시다”라는 果然 짭잘한 인사였다. 우리를 살짝 엊리는 그 말씀대로 우린 열올려 일했다. 더구나 그곳에는 선풍기 한 대가 열올려 돌아가고 있었으며 통풍이 좋은 位 置고 날씨도 선선했다. 우린 분류·목록 교열에 있어서 마음이 비슷하다는 評을 들었다.(맞았다는 主觀的 表現이고, 客觀的으로는 이것이 최상급이다)

그렇지만 불쌍하게도 Romanize化的 서울大 특유의 方法때문에 中國書 1卷과 日書 1卷에 근 1시간이 걸려야 했다. 그 問題에 있어서만은 3名 모두 100%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무슨 사서 고생인지요.

열람과에서 우리는 대출 카운터에 세워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이건 비밀이지만요, 혹 견수(?)

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농담중 진담이지만)
그런데 貸出 카운터가 좁은 탓인지 아까운 唯一
한 기회를 잃었죠. 書庫 관리를 했으니까요. 書
庫는 70m, 너비 110m길이로 4·5층 그넓은, 조금
誇張하면 운동장같은 서고에 52萬卷이라는 방대
한 집서와 시설에 웬지 배가 아프더군요. 부러
워하며 000류에서 900류까지 죽 둘러보고 나니
다리가...

헤라클레스같은 장사도 동선이 길어서 종일 헤
매면 힘들겠군요.

始作한 김에 圖書館에 對해 평을 좀 할까요?

한번 學校內를 죽 둘러본 後에야(너무 멀어서
눈으로만이지만) 圖書館이 中央에 位置하고 있
음을 알았다. 또 入口를 로타리式으로 비워두었
다. 그래도 우리 눈엔 그저 그 空間만이 아까웠
다. 書庫와 열람실, 규장각등 도서관이 굉장히
크다. 문득 어느 분의 말씀이 生覺난다. 이 큰
空閒을 조금 잘라 梨大 分館을 꾸미면 効用度가
대나무 죽순처럼 뻗지 않겠느냐는 말씀. 어떠한
지요? 放學이었지만 고무신 신고와 열심히 공
부하는 學生들. 기숙사 完工時엔 24時間 내내 개
방하여 學生들에 봉사하시겠다는 도서관 여러분
들. 정말 부럽습니다. 梨大가 같은 계획이라고 發
표한다면 우린 ‘멋쟁이! 멋쟁이!’를 신들나게
외칠거예요. 한데 서울大도 허파족이 出現했더
군요. 면T(런닝)바람에 맨발로 의자를 버리고
바닥에 앉으신 분들, 또 계단밑에 퍼지게 누워서
오수를 즐기시는 분들 말이예요. 우리는 아차 하
는 순간에 못 볼것까지 다 봐 버렸나 봐요.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은 참고서지과였다. 우린
때 아닌 구두시험을 치렀다. 연유인즉은 세 實
習生에게 차례로 理論과 實際를 質問하신 것
이었다. TEST가 아닌 체계적 이론 배경이 目的이
었지만, 한 여름 동태가 된 우리에겐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그곳에서는 멋진 일을 했다. 법관계, 총기사

색인을 만드는데 參加한 것이다. 말로만 듣던 主
題專門 司書의 시다(?)가 되어 봤죠.

마지막 날은 서울大 圖書館 최고의 자랑인 규
장각을 갔다. 화재시 自然發生的으로 Co₂ 까스가
분출, 섭씨 영하 60° 까지 내려가 소실의 염려가
없다는 곳이다.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갔다.
그곳 언니들은 정말 멋쟁이였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환하게 말해줘 우리들을 정
신없이 감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많은, 값을
해아릴 수 없는 규장각 도서가 많았고 족보라 든
가 흥패(과거시험 합격자에게 주는 문서), 탁본,
지도, 외교문서 등 고문서들이 많았다.

모두가 우리에게 신기하고 흥미가 있었다. 철
저한 장서관리로 인해서 모두 구경할 수 없는것
이 안타까웠다. 또한 時間상으로 짧았기 때문이
다. 지금도 못내 아쉽다. 一般 圖書館과는 달리
고풍스럽고 특수했다. 어쩌면 국립도서관 중
특수도서관으로 發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生覺
이 연뜻 스쳤다.重要な 연구자료가 많고 司書
의 역할도 큰 곳이었다.

이로써 짧고도 긴 10日間의 實習을 끝마쳤다.
짧은 기간이었으니 만큼 도서관 사정도 눈에 띠
는 것만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의 公文
을 찾는 딱딱한 도서관 인상이 진정 學生을 위
하는 봉사기관이 되고자 노력함을 본 것은 눈에
띄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곳에는 열심히 노
력하고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 그것을 生
覺하면 흐뭇하다. 이제는 직업의식이 發動한 것
일까?

× × ×

마지막으로 방대한 시설과 장서를 갖춘 서울
大 도서관이 조직이나 운영, 봉사에 있어서 크게
발전할 것을 믿으면서 實習生으로서 부탁을 드
립니다.

앞으로도 圖書館에 저희와 같은 實習生이 계

속 올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계획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이었으면 하고 욕심을 부려 봅니다. 처음 저희가 實習을 나올 때에는 圖書館學科 學生으로서 實習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때 圖書館 當局의 태도에 따라서 저희는 實習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教育的 사명감을 갖고 물론 힘드시더라도 지도·편달 해 주십시오.

以後 實習生이 社會進出時, 어느 圖書館에 가든지 밀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實習生들의 實際 능력 개발지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후배들에게 ×× 圖書館에서는 정말 實習다운 實習을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또自身에게도 그곳의 實習이 지금의 밀바탕

이라고 자부하며 봉사할 수 있게끔 말이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 한 여름의 實習日誌가 멋진 热夏日記(?)가 된 듯 합니다.

이제는 서울대의 넓고 파란 잔디밭을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맘껏 푸르른 하늘을 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가장 重要한 곳(?), 식당만을 알던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교수 전망대에 올라 관악산에 둘러싸인 대학을 둘러보면서 한적한 오후에 김 오르는 커피를 마실 여유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도움받은 많은 분들, 특히나 선배 언니들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학교에 돌아가 이렇듯 热夏日記(?)를 쓴 태산같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